

## 요 약

### 2016년 1/4분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하락 출발

- 서울의 1/4분기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4분기 만에 하락세
  - 2016년 1/4분기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표준화지수 기준 95.0으로 전(前) 분기 대비 3.3p 하락
  - 소비지출이 높아지는 신년과 설이 지나 당분간 소비심리 개선은 어려울 전망
- 서울의 현재와 미래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 모두 하락세
  - 2016년 1/4분기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0.8p 감소한 90.0,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 역시 99.4로 전 분기 대비 2.0p 감소
- 서울시민의 최대 관심 경제 이슈는 주택시장 불안정
  -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경제 이슈로 서울시민들은 ‘주택시장 불안정’(42.0%)을 선정

### 소상공인 업황은 하락이 장기화될 조짐

- 설 이후 업황은 하락하는 추세이며 불황이 장기화될 조짐
  - 서울시 내 구별 상공회 10개소 및 상공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업황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하락하거나 정체 상태
  - 총선 때 제시했던 각종 경제활성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 역시 5점 만점에 2.6점 수준
-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판매저하
  -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경기침체에 따른 ‘판매저하’(52.3%)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
-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 1순위는 ‘경기부양’

## 소상공인 방문고객 수, 매출액 모두 바닥

- 설 이후 시장 매출 지속적 하락
  -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(농수산물, 축산물, 식품)들은 물가상승과 소비위축으로 매출 하락세가 지속
  - 음식점의 경우 방문고객이 줄어들어 매출은 거의 정체되고, 대기업의 외식사업 진출로 음식료 경기는 양분화되는 추세
- 중국 생산의존도가 높은 업계는 중국 관련 변수에 따라 요동
  - 환율, 배송,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문제와 함께 중국 내 인건비 상승도 문제
- 방문객 감소, 매출하락 등 외부요인 외에 같은 소상공인 간 경쟁도 큰 고민
  - 같은 지역상인들 간 유사 업종이 많아 마찰 불가피
- 소상공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정책 개발 필요

## 내수 불황으로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제자리

- 내수시장 악화로 관광업계 경기 회복은 불투명하나, 명동은 외래관광객이 꾸준하게 방문
  - 업황 상태는 일부 회복 중이나 경기 회복 정도는 명동을 제외하고 정체 또는 하락 상태이며, 서울시민 및 소상공인의 가계 상태는 여전히 불황
- 관광특구에 대한 총선 영향력은 없으며, 특구 내 서울시 관광정책에 대한 경기부흥 기대 미약

## 소상공인·관광특구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

- 관광지 1위 명동은 예술, 문화의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우려
- 매출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승 때문에 소상공인 부담 가중
- 지속가능한 서울 관광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상생 지원 필요